

‘색조’에 힘 싣는 K-화장품 제조사… 글로벌 시장 정조준

한국콜마, 소재 개발 협력체계 구축
지난해 하반기 미국 제2공장 가동
코스맥스 ‘셰이드 아틀라스’ 공개
국가별 데이터 바탕 전략 고도화

국내 화장품 제조 기업들이 글로벌 ‘색조’ 화장품 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K뷰티가 스킨케어는 물론, 메이크업 제품으로 영향력을 넓힐 뿐 아니라 색조 부문 기술력이 신규 해외 고객을 확보하는 핵심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메이크업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지난 16일 미국 최대 화학기업 이스트만과 ‘친환경 메이크업 소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색조 화장품에 사용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재생 소재를 개발한다.

색조 화장품은 발립성, 밀착력, 지속력 등을 갖춰야 하는 특성상 합성 소재



코스맥스는 지난 14~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코스메윅 도쿄 2026’에서 기업 부스를 운영했다. /코스맥스

가 주로 쓰이고 있다. 이와 차별화된 천연 소재로 나무에서 추출 가능한 셀룰로오스, 자연 분해가 가능한 폴리머 등을 활용한다.

한국콜마는 이번 협업으로 확보하는 차세대 소재를 제품에 적용해 글로벌

색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북미와 유럽에서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수주 실적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콜마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제2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기존 제1공장에 더해 제2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제1공장은 색조 화장품을, 제2공장은 스킨케어와 선크어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친환경 소재 분야에 강점을 지닌 이스트만과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지속 가능하면서도 우수한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메이크업 소재로 글로벌 고객사와 접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코스맥스도 맞춤형 조색 기술력 등을 앞세워 글로벌 메이크업 시장을 공략한다.

코스맥스는 최근 일본에서 진행된 일본 최대 규모 뷰티 전시회 ‘코스메윅 도쿄 2026’에서 자사의 글로벌 컬러 트렌드 연구 능력을 집약한 ‘셰이드 아틀라스’를 소개했다.

해당 서비스는 진출 국가, 목표 소비자층 등 고객사 요청 사항, 최신 유행, 라이프 스타일 등을 반영한 맞춤형 색상 컨설팅을 제공한다. 코스맥스는 그동안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한 국가별 베이스 메이크업 데이터를 바탕

으로 전략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맥스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선크어, 에센스, 립, 마스크 팩 등에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으로 K뷰티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 스펀지 형태 쿠션 파운데이션에서 메시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는 데 발맞춰 코스맥스는 메시 쿠션 제형을 선보이고 있다.

코스맥스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색조 제품을 중심으로 전략 품목 확대에 나서고 있다. 코스맥스의 미국 사업 내 색조 비중은 지난해 2분기 59%, 3분기 52% 등을 기록하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미국에서 코스맥스는 컨실러, 블러셔 등 색조와 스킨케어 제품의 판매가 함께 늘어나며,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난 36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메이크업 제품에 코스맥스만의 글로벌 조색 기술을 더해 ‘K뷰티’ 가치를 프리미엄 급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JW중외제약, ‘JPMHC’서 신약개발 논의

탈모·안과·염증성 질환 치료제 등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 협력 모색

JW중외제약은 지난 12~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6’에 참가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사업개발(BD) 미팅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매년 전 세계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과 투자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투자 행사다.

JW중외제약은 이번 행사에서 해외 제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다수의 일대일 미팅을 진행했다. 미팅에서는 ▲탈모

치료제 후보물질 JW0061 ▲안과질환 치료제 JW1601 ▲STAT6 저해제 기반 염증성 질환 치료제 등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 및 기술 제휴 가능성을 논의했다.

JW0061은 안드로겐성 탈모증 등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GFRA1 작용제다. 최근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고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IND)도 신청했다.

히스타민 H4 수용체 길항제인 JW1601은 기존 개발 전략을 재검토해 안과질환 치료제로 적응증을 변경했으며, 현재 임상 2상 진입을 준비 중이다. STAT6 저해제는 호산구성 식도염

등 제2형 염증성 질환에 쓰이는 경구용 혁신신약(계열 내 최초) 후보물질이다. 특히 STAT6는 글로벌 제약 업계가 주목하는 신규 기전을 갖춰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적응증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당 연구는 2025년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로도 선정된 바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직접적으로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영국 뷰티 플랫폼서 ‘설화수’ 만난다

‘컬트 뷰티’ 공식 입점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영국 온라인 뷰티 플랫폼 ‘컬트 뷰티’에 공식 입점했다고 20일 밝혔다.

설화수는 브랜드 대표 제품 윤조에센스, 자음생크림 등을 선보인다. 윤조에센스는 스킨케어 첫 번째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독자 성분 자음단, 500시간 자연 숙성을 거친 인삼 소재 립 파닉스 등을 함유한다. 자음생크림은 고기능성 항노화 크림이다. 희귀 인삼 사포닌을 6000배 농축한 진세노믹스, 인삼 유래 펩타이드 등이 피부 재생력을 높인다.

영국은 뷰티 문화와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럭셔리 소비자층이 형성된 시장으로 알려졌다. 컬트 뷰티



설화수 ‘윤조에센스’(왼쪽) 자음생크림.

도 브랜드 선별에 스토리, 제품력, 지속가능성 등 다각도 평가 기준을 적용해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다.

설화수는 현지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영국 내 오프라인 유통 채널 협업 가능성도 검토하는 등 브랜드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영국은 유럽과 중동을 잇는 전략적 거점이다. 설화수는 영국에서 유럽 전역으로 시장 공략을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설 명절엔 스타벅스 기프트 상품 어때요?”

사전 예약기간 2배로 늘리고
할인 쿠폰·별 적립 등 혜택

스타벅스 코리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쿠키, 커피, 굿즈 등으로 구성된 ‘설 기프트 상품’을 선보이며 20일부터 스타벅스 앱 내 온라인 스토어에서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올해는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 예약 기간을 지난해보다 두 배 늘려 2월 2일까지 14일간 운영한다. 사전 예약 고객에게는 전 상품 무료배송과 발송일 지정 서비스가 제공되며, 할인 쿠폰과 별 적립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이번 설 기프트 상품은 5만 원 내외의 가격대로 구성해 부담을 낮췄다. 설 분위기를 살린 푸드 상품으로는 ‘아몬드 정과 세트’, ‘피넛초코칩떡과이’, ‘어썬티드 쿠키 텀 세트’ 등 쿠키류와 전통 간식 ‘우리쌀 전병’이 출시된다. 일부 상



스타벅스 설 기프트 상품인 ‘어썬티드 쿠키 텀 세트’를 전달하는 모습. /스타벅스 코리아

품은 매장 전용으로 판매되며, 설 전용 쇼핑백과 포장 서비스도 제공된다.

커피 기프트로는 비아(VIA)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비아 어쇼트먼트 세트’와 드립백 원두와 머그를 함께 구성한 ‘오리가미 & 머그 2P 세트’가 온라인 스토어 한정으로 판매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알테오젠-테사로 독점 라이선스 체결

도스탈리맵의 피하주사 제형 개발

알테오젠은 GSK의 자회사인 테사로(Tesaro)와 하이브로자임(Hybrozyme)기술이 적용된 ALT-B4를 활용한 도스탈리맵의 피하주사(SC) 제형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테사로는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기술을 적용한 히알루로니다제 ALT-B4를 사용하여 PD-1 억제제 ‘도스탈리맵’의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 및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알테오젠은 이번 계약을 통해 2000만 달러의 계약금을 수령하며, 개발, 허가 및 매출 관련 주요 마일스톤 달성시 2억 6500만 달러의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케라논 연고’로 수분 더하고 각질은 안녕

동아제약, 우레아·살리실산 복합 처방

동아제약은 피부 과다각화 치료제 ‘케라논 연고(사진)’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케라논 연고는 일반의약품으로 우레아와 살리실산을 복합 처방해 두꺼워진 각질 관리에 효과를 갖췄다.

주성분인 우레아는 피부 수분 손실을 줄이고 각질층의 수분 농도를 높여 두꺼워진 각질을 부드럽게 한다. 여기에 살리실산 5%를 더해 각질 완화뿐 아니라 각질 제거까지 가능하다.

텍스판데놀과 쉐어버터를 첨가해 자극 완화와 보습 효과를 제공한다. 피부에 밀착되는 코팅 밤 제형이 유효 성분의 밀폐력을 높여 지속적인 보습 효과



를 유지해 준다.

과다각화증은 피부 각질층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피부 표면이 단단해지고 거칠어지는 증상이다.

피부가 건조해진 상태에서 각질이 제대로 탈락되지 않으면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거나 다소 어두운 색으로 착색되기도 한다. 케라논 연고는 1일 1~2회 환부를 깨끗이 씻은 후 도포하면 된다.

/이청하 기자